

TV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scheduled times across the day.

Table with 2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scheduled times.

바람직한 노후자금 준비 어떻게

오늘 밤 KBS1 '시사기획 KBS10'서 조명

기대수명은 늘고 은퇴는 빨라지면서 노후 자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38%는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기껏 받은 퇴직금도 사기 등 기승을 부리는 범죄에 노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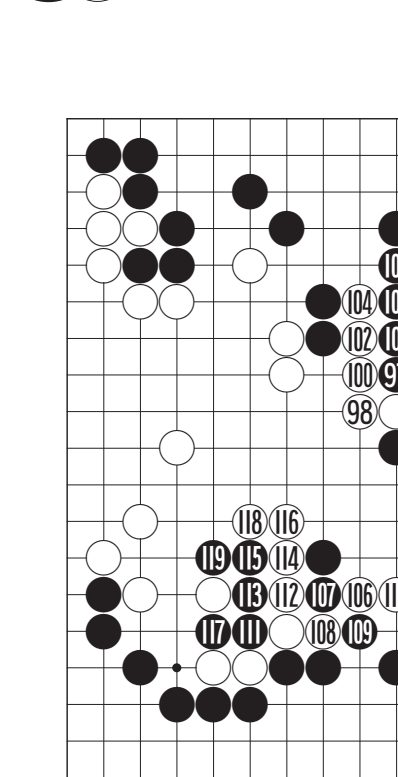
KBS 1TV '시사기획 KBS10'은 26일 오후 10시 '노후자금에 위협하다' 편에서 노후자금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 편과 국가 편에서 각각 짚어본다. 또 퇴직금 등 노후자금과 관련한 사기 등의 위험 사례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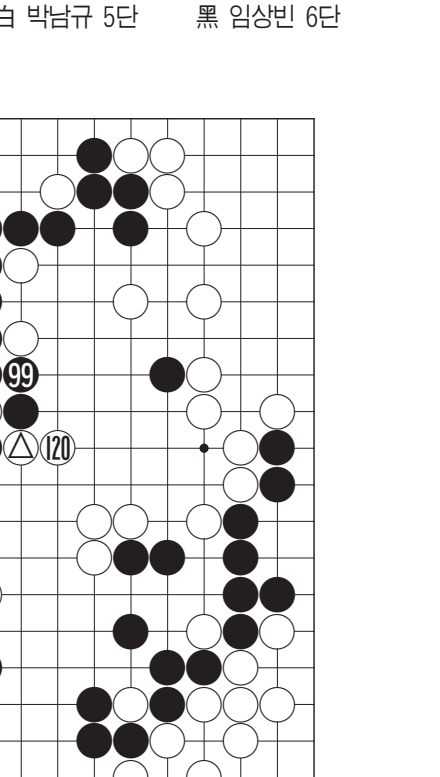
노인들은 연금에도 기댈 수가 없는 처지다. 국민연금은 갈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중이고, 개인연금은 해지율이 너무 높다. 퇴직연금은 아직 초창기라 정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적한다. 또 우리와 같은 고령화 현상을 겪은 해외의 사례도 살펴보고 배울 점을 찾아본다.

전국체전 일반부 광주대표 선발전

뺨기를 막은 결정타 결승 1국 7보 (97~120)



백 △로 우지근 끊어버린 수가 우격다짐 같으나 자신감의 발로다. 어느 쪽이든 한쪽만 집이 되면 이긴다는 판단이다. 흑은 울며 겨자먹기로 97로 볼 수밖에 없는데 백 100부터 104까지 죽죽 밀어 버린 다음 106으로 중앙을 가르고 나오니 갑자기 중앙의 백 집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기세다. 도중 흑 103으로는 아깝지만



'참고도'의 흑 1로 몰아버리고 3으로 단수치는 것이 이득이었으나 대세를 뒤집기에 역부족이다. 백 106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래쪽 백 두 점을 희생타로 하여 중앙을 키워려는 수로 승부에 뺨기를 막는 결정타가 되었다. 흑은 107로 나가 끊고 117까지 백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백 110으로 늘고 다시 120으로 둔 수가 워낙 커서 대세가 완전히 백 쪽으로 기울었다. 흑의 분발이 요구되는 장면이다. <요구질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백 △로 우지근 끊어버린 수가 우격다짐 같으나 자신감의 발로다. 어느 쪽이든 한쪽만 집이 되면 이긴다는 판단이다. 흑은 울며 겨자먹기로 97로 볼 수밖에 없는데 백 100부터 104까지 죽죽 밀어 버린 다음 106으로 중앙을 가르고 나오니 갑자기 중앙의 백 집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기세다. 도중 흑 103으로는 아깝지만

'참고도'의 흑 1로 몰아버리고 3으로 단수치는 것이 이득이었으나 대세를 뒤집기에 역부족이다. 백 106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래쪽 백 두 점을 희생타로 하여 중앙을 키워려는 수로 승부에 뺨기를 막는 결정타가 되었다. 흑은 107로 나가 끊고 117까지 백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백 110으로 늘고 다시 120으로 둔 수가 워낙 커서 대세가 완전히 백 쪽으로 기울었다. 흑의 분발이 요구되는 장면이다. <요구질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손예진 '개인의 취향'으로 안방 복귀

MBC 새 수목드라마... 상대역 이민호

손예진과 이민호가 안방극장에서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를 펼친다. 25일 MBC에 따르면 손예진은 MBC 새 수목드라마 '개인의 취향'(극본 박해경, 연출 손현석)에서 타이틀 롤인 '개인의 취향' 역을 연기한다. 박해경의 상대역인 전진호 역에는 '꽃보다 남자'의 이민호가 캐스팅됐다.

건축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박철한 교수의 외동딸 박개인은 20대 후반의 가구 디자이너이자 싱글용 가구 브랜드 '뽀'를 창업한 CEO이지만, 대책 없는 실수와 사고를 연발하고 사랑에 상처도 많이 받는다. 그러나 늘 밝고 씩씩한 모습을 잃지 않는 순수한 영혼의 여성이다. 박개인은 이런 상처 때문에 마음이 맞는 게이 친구를 갖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다. 우연히 알게 된 전진호가 게이라고 오해한 박개인은 그와 동거에 들어가며 동성애자의 헤프닝을 겪게 된다.

손예진은 "올해는 밝고 즐거운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 작품을 만나게 됐다. 박개인이 빈 구역은 많지만 그것이 오히려 귀엽고 매력 있게 다가오는 여자라는 점에서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Table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telling by the 50th birthday). It lists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for the day of January 26, 2010.

Large section containing language learning materials. It includes a dialogue about shopping in English and Korean, followed by a lesson on the Korean word '心配' (concern) and its equivalent in Chinese and Japanese. It also features a section for '한자 이야기' (Chinese Character Story) about the character for '家徒壁立' (poverty).